

# 민주광장에 신개념 전시공간 문 열어

광주 문화전당 미리 체험하게  
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

시추진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  
설 공사가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 앞  
민주광장에 31일 새로운 개념의 북

합문화공간인 '쿤스트할레 광주'를  
개관했다.

쿤스트할레(Kunsthalle)는 전시

공간(Art Hall)을 뜻하는 독일어  
다. 우리말 이름으로 '아시아문화  
마루'인 쿤스트할레 광주는 수출  
용 컨테이너 박스 29개를 쌓아 올  
려 건축면적 520㎡(159평), 건축연  
면적 1019㎡(309평) 규모로 만들어  
졌다.

'쿤스트할레 광주'는 시민들이  
문화전당을 미리 체험하고, 문화적  
활력을 일으켜 문화중심도시 조성  
사업에 시민 참여의 전기를 만들기  
위해 마련한 공간이다.

4각 임방체 형태의 컨테이너 박  
스가 광장을 중심으로 성벽처럼 돌  
러치면서 중앙에 공연장과 전시  
장이 만들어졌다. 특히 3층 외관  
을 장식하는 옥외의 대형 영상 스크  
린이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. 내  
부는 복합공연장과 영상예술을 감  
상하는 '미디어스크린 월'(media  
wall), 문화 도서관, 아트라운지 등  
으로 꾸며진다.

쿤스트할레 광주의 개관 행사로  
스위스 출신의 국제적 예술그룹 이  
토이의 작품전이 11월 7일까지 이어  
진다. 유지호 기자



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31일 개관한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공간 '쿤스트할레 광주'의 내부 모습.

[쿤스트할레 광주 제공]